

초등학생의 흡연예방 보건교육 방향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교사 의견을 기반으로 -

문 정 순*·양 수*·박 호 란*·이 은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제적 여유와 사회의 선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청소년의 정신적 나약함과 물질만능주의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의 약물남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연령도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약물 중에서도 특히 사용경험과 남용의 빈도가 높은 것이 담배이다(신, 1996).

흡연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담배를 처음 피운 비율이 중학생 중에서는 35%, 고등학생 중에서는 10.3%, 대학생 중에서는 남자 5.2%, 여자 13.8%로 최초흡연연령의 하향화 추세가 뚜렷하며, 특히 소년원생 중 초등학교에서 흡연을 시작한 비율이 남자 12.0%, 여자 25.4%로서(문화체육부, 1993), 많은 흡연자들이 초등학교 졸업 전에 담배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의 예방이 가능할 것이므로 김, 박, 오, 김 및 서(1991)는 학생과 소년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고, 약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규과목형태의 보건교육 및 약물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초등학생시기는 평생의 건강습관과 가치관이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효과적인 보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생들에 있어 경험과 남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흡연예방을 위하여 전문가들이 바람직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초등학생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들과 가장 가깝게 생활하며 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교육의 효과, 방법, 매체에 대해서도 사용경험과 그에 대한 효과를 파악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흡연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초등학생을 잘 이해하며, 그들에 대한 교육방법과 그에 따른 효과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일선 교육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하여 흡연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교사의 의견을 기초로 초등학생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의 방향제시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교사의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를 파악한다.

2. 초등학교 교사의 흡연예방의 교육시작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수업방식, 교육매체, 교육담당자 등에 대한 견해를 파악한다.
3. 초등학교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파악한다.

II. 문헌 고찰

담배는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약물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물질이다. 어린 나이에 흡연을 하게 되면 신체조직 특히 골수, 뇌, 간, 신장 등의 손상 가능성이 높고, 성인기로 들어가면 마약과 같은 더욱 강력한 약물의 남용 및 의존으로 진행될 수 있다. 약물의 위험에 대한 교육과 약물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약물남용을 줄이므로(최, 1996), 흡연의 위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교육은 흡연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다.

학교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약물남용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 또래의 영향으로 쉽게 약물에 빠져들게 될 수도 있으므로 학교의 임무 중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를 보면 경기도 일부 중학생들의 흡연 경험율은 24.6%라 하였으며(신, 1996), 서울시의 일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의 흡연 경험율은 16.0%였다(차, 1997). 문화체육부(1996)의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93년에서 1996년까지 초등학교의 본드 흡입율이 15.4%증가하였고, 흡연 경험율이 남자의 경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5.4배가 증가했으며, 여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10.4배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는 주로 성인사회에 대한 호기심으로 약물 경험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각기 다른 차원의 예방교육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약물교육의 강도를 더 심화시켜야 한다(문화체육부, 1996).

약물을 사용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또한 증가되고

있음이 이미 밝혀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기 예방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되어 왔다(김, 1995). 지식의 제공은 정보를 한번 교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조직된 교과과정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Engs & Fors, 1988) 다양한 이유로 약물을 시작하는 청소년에게 약물예방교육은 일시적인 집단 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초등학교생은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하여 약물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친구나 대중매체 등을 통한 단편적이고 때로는 편협되기도 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체계적인 학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약물사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전달이 필요하며,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수준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약물사용에 대한 보건교육이 어려서부터 이루어져서 약물의 사용과 남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체육청소년부, 1991).

김(1993)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4회에 걸친 약물교육이 초등학교생의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차(1997)도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실시 후 약물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양호교사가 실시한 초, 중, 고등학생들의 약물교육효과 연구'(김, 현, 성 및 공, 1994)에서도 양호교사가 실시한 약물교육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교육이 일년에 한 두 시간 집단적인 강의 혹은 비디오 시청 등 형식적이고 일시적이며, 그나마 일부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흡연에 대한 여러 유인 요인들이 많아서 해마다 증가하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바(문화체육부, 1996),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이의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교과과정이 현실적인 특성에 맞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길, 1993). 즉 초등학교생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일선교육전문가와 보건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초등학교생 위한 바람직한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흡연실태와 태도 및 바람직한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흡연예방을 위한 보건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1999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18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600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529부(88.2%)를 회수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교육을 받은 자료 수집 원들이 서울 시내 초등학교 교사연수회에 참석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연수원에서 쉬는 시간을 통하여 각 반에서 허락을 받아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자료를 배포하여 다음 쉬는 시간에 수거하여 225부를 회수하였으며, 서울 시내 19개의 초등학교에서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서 방과후에 각 교실로 방문, 취지를 설명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여 304부를 수거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팀이 문헌을 참고하여 도구를 개발한 후 초등학교 교사 8인과 교육학 교수, 예방의학교수 각 1인의 자문을 받아 질문지를 수정하여 교사 5인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관련특성, 흡연 실태와 태도, 효과적인 흡연예방교육형태에 대한 견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자료분석방법

SA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과 교육관련특성, 흡연 실태와 태도, 효과적인 흡연예방교육 형태 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의 견해는 chi square로 분석하였다.

1. 대상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중 연령분포를 보면, 40-49세가 33.8%(178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39세가 32.1%(169명), 21-29세가 25.8%(136명) 이었다.

성별은 여자가 446명으로 84.5%, 남자가 82명으로 15.5%였으며, 종교는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아서 38.3%(202명)였으며, 기독교가 193명(36.7%), 천주교 89명(16.9%), 불교 42명(8.0%)의 순이었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82.0%(432명), 미혼이 18.0%(95명)였으며 자녀가 있다가 74.6%(302명), 없다가 25.4%(103명)였다.

대상교사의 교육경력은 16-25년이 32.9%로 가장 많았으며, 6-15년이 28.0%, 5년 이하가 21.3%의 분포를 보였으며, 대상교사의 평균 교육경력은 15.5±9.7년이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년은 1학년이 가장 많아서 19.8%, 그 다음이 2학년으로 18.1%였으며, 나머지 학년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표 1> 교사들의 일반적 특성 N=529

일반적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연령(세)	21-29	136	25.8
	30-39	169	32.1
	40-49	178	33.8
	50-65	44	8.3
	계	527	100.0
성별	남	82	15.5
	여	446	84.5
	계	528	100.0
종교	천주교	90	17.0
	기독교	194	36.7
	불교	42	8.0
	없음	202	38.3
	계	528	100.0
결혼상태	기혼	432	82.0
	미혼	95	18.0
	계	527	100.0
교육경력(년)	5 이하	112	21.3
	6-15	148	28.0
	16-25	173	32.9
	26 이상	94	17.8
	계	527	100.0
질병유무	있음	193	36.8
	없음	332	63.2
	계	525	100.0

무응답 제외

Ⅳ. 연구 결과

대상교사의 건강관련특성을 보면,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63.2%(332명)이었고, 건강상 이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36.8%(193명)이었다<표 1>.

2. 대상교사의 흡연실태

대상교사의 흡연실태는 무경험자가 86.4%였고, 현재 흡연하고 있는 교사는 전체의 8.3%, 학교에서도 흡연하고 있는 교사는 전체 대상자의 6.9% 이었다.

<표 2> 교사들의 흡연실태 N=529

흡연 형태	구 분	실 수	백분율
흡연여부	전혀 없다	456	86.4
	과거흡연	28	5.3
	현재흡연	44	8.3
	계	528	100.0
학교에서의 흡연	예	36	6.9
	아니오	487	93.1
	계	523	100.0

무응답 제외

3. 대상교사의 흡연예방 교육에 대한 견해

1) 초등학생을 위한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91.9%로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필요한 이유로는 흡연학생의 증가와 흡연연령층의 하향추세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22.4%)와 흡연의 해로움에 관한 이해 및 지식전달이 필요하기 때문(21.1%)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80.0%로 가장 많았으며,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다가 15.0%였다.

2) 흡연예방교육의 시작시기

흡연예방교육의 적당한 시작시기는 45학년이 좋겠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37.6%로 가장 많았으나, 6학년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36.0%였다.

3) 흡연예방 교육시간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시간으로는 체육시간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서 41.1%였으며, 다음은 특활시간 28.8%, 일반수업시간이 17.9%였다.

<표 3> 흡연예방 교육의 필요성 N=529

교육의 필요성	구 분	실 수	백분율	
있다	필요한 이유	흡연의 나쁜 점에 대한 이해 및 지식전달	79	21.1
		흡연학생이 많고 시작 연령층이 어려짐	113	30.1
	예방차원	65	17.3	
	건강에 해로움	84	22.4	
	건전한 가치관, 태도, 습관형성	24	6.4	
	가정에서의 교육부재	9	2.4	
	비행증가	1	0.3	
	계	375	100.0	
	없다	필요하지 않은 이유	43	8.1
		나이가 어리다	16	80.0
호기심 자극		3	15.0	
가정에서 교육하고 있다		1	5.0	
계	20	100.0		
계	528	100.0		

무응답 제외

4) 흡연예방 교육 수업방식

흡연예방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수업 방식이 토론식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45.1%(23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실험형식으로 39.9%(208명)였다.

5) 흡연예방 교육내용

흡연교육내용으로는 흡연이 질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으며(33.2%), 다음으로 성장발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필요하다(28.1%), 흡연의 습관성(11.1%), 타인에게 해로움(11.1%)에 대한 내용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6) 흡연예방 교육의 매체

흡연예방 교육의 매체로는 비디오가 57.2%(301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게임(20.0%)과 만화(19.2%)이었다.

7) 흡연예방 교육 담당교사

흡연예방교육의 전담자로는 양호교사가 좋겠다는 응답이 64.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담임교사(18.5%)로 조사되었고 학부모와 강사나 유명인사가 각각 6.5%였다.

<표 4>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 방향에 대한 견해

N=529

흡연예방교육	구 분	실 수	백분율
교육시작시기	3학년	68	13.2
	4-5학년	195	37.6
	6학년	186	36.0
	중학교	68	13.2
	계	517	100.0
교육시간	일반수업	91	17.9
	특활	146	28.8
	체육	208	41.1
	기타	62	12.2
	계	507	100.0
수업방법	토론	235	45.2
	일반수업	51	9.8
	실험	208	39.9
	기타	27	5.2
	계	521	100.0
교육내용	성장발달장애	144	28.1
	흡연의 습관성	57	11.1
	질병유발	170	33.2
	조기사망	55	10.8
	타인에게 해로움	57	11.1
	학교성적저하	29	5.7
	계	512	100.0
교육매체	만화	101	19.2
	컴퓨터게임	105	20.0
	비디오	301	57.2
	교과서	14	2.7
	기타	5	0.9
	계	526	100.0
담당교사	담임	97	18.5
	양호교사	335	64.1
	체육교사	23	4.4
	학부모	34	6.5
	유명인사, 전문강사	34	6.5
	계	523	100.0

무응답 제외

4.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 예방 교육에 대한 견해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 본 결과, 연령과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9). 즉 20대, 30대 교사의 93.4%, 93.5%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50대의 79.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젊은 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표 5>.

교사의 성별, 종교 유무별, 결혼상태에 따른 흡연예방 교육의 필요성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질병 유무 및 교사의 음주 행태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연령에 따른 흡연예방교육 방향

교사의 세대와 교육 경력에 따라 흡연예방교육의 방향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과 교육 경력과는 거의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r=0.9474, p=0.0001) 연령에 대한 결과만 제시하였다<표 6>.

교사의 연령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의 방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교육내용과 교육매체에 대한 의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6, 0.002).

교육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20대의 31.5%, 30대의 24.7%, 40대의 28.5%, 50대의 27.3%가 성장장애에 대한 내용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질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에 20대의 26.9%, 30대의 39.2%, 40대의 32.0%, 50대의 34.0%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즉 20대 교사가 성장발달장애에 관심을 두는데 비하여 연령이 많을수록 질병유발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어 연령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적 저하, 타인에게 피해, 조기 사망, 습관성을 가진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던 의견은 소수였으며, 연령 대 별로 비율과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교육매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20대, 30대, 40대 및 50대의 전 연령층이 비디오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각각 47.8%, 60.3%, 57.3% 및 75.0%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컴퓨터 게임으로 20대가 24.6%, 30대가 18.9%, 40대가 20.8%로 응답하였고 50대의 교사는 4.6%만이 응답하였다. 만화에 대하여 20대, 30대, 40대가 각각 24.6%, 17.8% 및 13.6% 응답하였으며 교과서에 대하여서는 50대 교사가 6.8%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의 매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P=0.002).

흡연예방교육의 시작시기, 교육시간, 수업방법 및 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다.

3) 결혼상태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방향

교사의 결혼상태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 교육내용, 교육매체, 교육담당자에 대한 응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

N=529

일반적 특성	구 분	필요하다		계	x ²	p
		실수(%)	필요없다 실수(%)			
연령	20대	127(93.4)	9(6.6)	136(100.0)	9.943	0.019
	30대	158(93.5)	11(6.5)	169(100.0)		
	40대	164(92.1)	14(7.9)	178(100.0)		
	50대	35(79.6)	9(20.4)	44(100.0)		
	계	484(91.8)	43(8.2)	527(100.0)		
성별	남	77(93.9)	5(6.1)	82(100.0)	0.543	0.461
	여	408(91.5)	38(8.5)	446(100.0)		
	계	485(91.9)	43(8.1)	528(100.0)		
종교	있음	302(92.6)	24(7.4)	326(100.0)	0.697	0.404
	없음	183(90.6)	19(9.4)	202(100.0)		
	계	485(91.9)	43(8.1)	528(100.0)		
결혼상태	기혼	395(91.4)	37(8.6)	432(100.0)	0.526	0.468
	미혼	89(93.7)	6(6.3)	95(100.0)		
	계	484(91.8)	43(8.2)	527(100.0)		
질병	있음	177(91.7)	16(8.3)	193(100.0)	0.004	0.949
	없음	305(91.9)	27(8.1)	332(100.0)		
	계	482(91.8)	43(8.2)	525(100.0)		
흡연행태	비흡연	414(91.4)	39(8.6)	453(100.0)	3.364	0.189
	흡연	69(97.2)	2(2.8)	71(100.0)		
	계	483(92.9)	41(7.8)	524(100.0)		

무응답 제외

<표 6> 연령별 흡연 예방교육 방향

N=529

흡연예방교육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계	x ²	p
		실수(%)	실수(%)	실수(%)	실수(%)			
시작시기	3학년	14(10.6)	23(13.6)	26(14.9)	5(12.2)	68(13.2)	14.95	0.244
	4, 5학년	51(38.6)	69(40.8)	59(33.9)	15(36.6)	194(37.6)		
	6학년	53(40.2)	59(34.9)	63(36.2)	11(26.8)	186(36.0)		
	중학교	14(10.6)	18(10.7)	26(14.9)	10(24.4)	68(13.2)		
	계	132(25.6)	169(32.8)	174(33.7)	41(7.9)	516(100.0)		
교육시간	일반수업	22(16.9)	29(17.7)	33(19.5)	7(16.3)	91(18.0)	10.82	0.288
	특활	36(27.7)	44(26.8)	50(29.6)	15(34.9)	145(28.7)		
	체육	56(43.1)	76(46.3)	65(38.5)	11(25.6)	208(41.1)		
	기타	16(12.3)	15(9.2)	21(12.4)	10(23.3)	62(12.2)		
	계	130(25.7)	164(32.4)	169(33.4)	43(8.5)	506(100.0)		
수업방법	토론	62(47.0)	67(39.6)	80(45.5)	26(59.2)	235(45.1)	13.42	0.340
	일반수업	16(12.1)	17(10.1)	15(8.5)	3(6.8)	51(9.8)		
	실험	49(37.1)	74(43.8)	70(39.8)	15(34.1)	208(39.9)		
	기타	5(3.9)	11(6.5)	11(6.3)	0(0.0)	27(5.2)		
	계	132(25.3)	169(32.4)	176(33.8)	44(8.5)	521(100.0)		
교육내용	성장장애	41(31.5)	41(24.7)	49(28.5)	12(27.3)	143(27.9)	30.11	0.036
	습관성	22(16.9)	17(10.2)	16(9.3)	2(4.6)	57(11.2)		
	질병유발	35(26.9)	65(39.2)	55(32.0)	15(34.1)	170(33.2)		
	조기사망	9(6.9)	17(10.2)	25(14.6)	4(9.1)	55(10.8)		
	타인에 피해	13(10.0)	16(9.6)	20(11.6)	9(20.5)	58(11.3)		
	성적저하	10(7.7)	10(6.0)	7(4.1)	2(4.6)	29(5.7)		
	계	130(25.4)	166(32.4)	172(33.6)	44(8.6)	512(100.0)		

<표 6> 연령별 흡연 예방교육 방향(계속)

N=529

연령		20대 실수(%)	30대 실수(%)	40대 실수(%)	50대 실수(%)	계	x ²	p
흡연예방교육	만화	33(24.6)	30(17.8)	32(18.0)	6(13.6)	101(19.2)	30.82	0.002
	컴퓨터 게임	33(24.6)	32(19.9)	37(20.8)	2(4.6)	104(19.8)		
	비디오	64(47.8)	102(60.3)	102(57.3)	33(75.0)	301(57.3)		
	교과서	4(3.0)	5(3.0)	7(3.9)	3(6.8)	19(3.7)		
	계	134(25.5)	169(32.2)	178(33.9)	44(8.4)	525(100.0)		
교육담당	담임	23(17.3)	32(19.1)	31(17.5)	11(25.0)	97(18.6)	11.66	0.473
	양호교사	83(62.4)	109(64.9)	117(66.1)	25(56.8)	335(64.0)		
	체육교사	3(2.2)	7(4.1)	12(6.8)	1(2.3)	23(4.4)		
	학부모	11(8.3)	9(5.4)	9(5.1)	5(11.4)	34(6.5)		
	기타	13(9.8)	11(6.6)	8(4.5)	2(4.5)	34(6.5)		
	계	133(25.5)	168(32.2)	177(33.9)	44(8.4)	522(100.0)		

무응답 제외

<표 7> 결혼상태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방향

N=529

흡연예방교육	구 분	기 혼 실수(%)	미 혼 실수(%)	계 실수(%)	x ²	p
시작시기	3학년	61(14.4)	7(7.7)	68(13.2)	4.436	0.350
	4-5학년	156(36.7)	39(42.9)	195(37.8)		
	6학년	152(35.7)	33(36.2)	185(35.8)		
	중학교	56(13.2)	12(13.2)	68(13.2)		
	계	425(82.4)	91(17.6)	516(100.0)		
교육시간	일반수업	74(17.8)	17(18.9)	91(18.0)	2.140	0.544
	특활	124(29.8)	21(23.3)	145(28.7)		
	체육	170(40.9)	38(42.2)	208(41.1)		
	기타	48(11.5)	14(15.6)	62(12.2)		
	계	416(82.2)	90(17.8)	506(100.0)		
수업방법	토론	190(44.4)	45(48.4)	235(45.1)	2.434	0.657
	일반수업	42(9.8)	9(9.7)	51(9.8)		
	실험	172(40.2)	36(38.7)	208(39.9)		
	기타	24(5.6)	3(3.2)	27(5.2)		
	계	428(80.2)	93(17.8)	521(100.0)		
교육내용	성장장애	114(27.0)	29(32.2)	143(27.9)	13.681	0.033
	습관성	40(9.5)	17(18.9)	57(11.1)		
	질병유발	149(35.3)	21(23.3)	170(33.2)		
	조기사망	49(11.6)	6(6.7)	55(10.8)		
	타인에 피해	49(11.6)	9(10.0)	58(11.3)		
	성적저하	21(5.0)	8(8.9)	29(5.7)		
교육매체	만화	76(17.6)	25(26.6)	101(19.2)	11.384	0.023
	컴퓨터 게임	80(18.6)	25(26.6)	105(20.0)		
	비디오	257(59.6)	43(45.7)	300(57.1)		
	교과서	18(4.2)	1(0.1)	19(3.7)		
	계	431(82.1)	94(17.9)	525(100.0)		
교육담당	담임	80(18.6)	17(18.5)	97(18.6)	9.943	0.041
	양호교사	283(65.8)	51(55.4)	334(64.0)		
	체육교사	20(4.7)	3(3.2)	23(4.4)		
	학부모	23(5.3)	11(12.0)	34(6.5)		
	기타	24(5.6)	10(10.9)	34(6.5)		
	계	430(82.4)	92(17.6)	522(100.0)		

무응답 제외

답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7>.

결혼상태에 따른 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기혼교사의 35.3%가 질병유발, 미혼교사의 32.2%가 성장장애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기혼교사는 질병유발, 성장장애, 조기사망, 타인의 피해, 습관성, 성적저하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미혼교사는 성장장애, 질병유발, 습관성, 타인에게 피해, 성적저하, 조기 사망의 순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란 의견을 주어 결혼상태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3$).

결혼상태에 따른 교육매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기혼교사 59.6%가 비디오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었고, 다음이 컴퓨터 게임 18.6%, 만화 17.6%, 교과서 4.2%의 순인 반면, 미혼교사의 45.7%가 비디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다음으로 컴퓨터 게임과 만화가 각각 26.6%였으며 교과서가 0.1%의 순으로 결혼상태에 따른 흡연예방 교육의 매체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3$).

결혼상태에 따른 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기혼교사의 65.8%, 미혼 교사의 55.4%가 양호교사가 가장 적임자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담임 교사, 18.6%의 기혼교사와 18.5%의 미혼교사가 응답하였다. 체육교사, 학부모, 기타 외부 인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은 소수였으며 결혼 상태에 따라 비율과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두 집단 간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의 담당교사에 대한 의견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41$).

결혼상태별 교육의 시작시기, 교육시간, 수업방법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은 연령별로 차이가 없었다.

IV. 논 의

청소년들의 물질남용은 전 세계를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같은 집단에 속하기 위해, 수줍음이나 자신감의 결핍을 숨기기 위해 또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물질을 남용하게 된다. 처음에는 음주나 흡연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점차 더 강한 것을 남용하게 된다(홍과 김, 1996).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 학생의 흡연예방교육에 관한 같은 방향의 연구가 없어 연구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하지 못하고 논의를 하게되었다.

교사의 흡연상태는 현재의 흡연율이 8.3%로 상당히 낮은 율이었으며 학교에서 흡연하는 교사도 6.9%에 지나지 않아 건전한 집단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상교사 중 여교사의 비율이 84.5%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자 교사의 비율이 전체의 15.5%인 점을 감안할 때 남자교사만 흡연을 한다고 가정을 하여도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흡연율 61%(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보다 훨씬 낮은 것이며 이로 미루어보아 초등학교 교사가 건강행위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대상교사의 종교 중 '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기독교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여 흡연과 음주를 금하는 기독교의 교리에 의거하여 대상교사의 흡연상태와 태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의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견해를 보면, 91.9%의 교사가 초등학생에게 흡연교육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흡연학생의 증가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선교사가 요즘의 초등학생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80.8%가 그 이유로 초등학생이 어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초등학생의 흡연 율이 상당한 현재의 사태를 무시한 응답이라고 생각된다.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의 적당한 시기로는 4, 5학년과 6학년이 73.6%를 차지하여 초등학교 고학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보며,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는 토론과 실험에 대한 응답이 높았는데 이는 일선교사가 현행의 수업방식을 탈피한 새로운 교육방법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해석된다.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교사의 연령과 흡연교육의 필요성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 교사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 초등학생에 대한 흡연교육의 필요성이 높았다($p=0.019$). 또한 연령에 따라 교육내용과 교육매체에 대한 견해에 있어 차이가 있어($p=0.036, 0.002$), 20대 교사들이 교육내용으로는 성장장애에 대한 내용과 질병예방, 습관성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매체로 비디오(47.8%)와 컴퓨터 게임(24.6%)이나 만화(24.6%)등을 고루 추천하는 데 반하여 50대 교사는 교육내용으로 질병유발, 성장장애, 타인의 피해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교육매체로는 대부분(75.0%)이 비디오를 추천하였고 교과서도 6.8%에서 추천하였다.

위의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시 교육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우선 순위를 시

사하는 중요한 자료라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매체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성 있는 매체가 비디오임을 말해주고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니 만큼 그들의 흥미와 집중시간 등을 고려하고 변화하는 세대에 어우러질 수 있는 매체 즉 만화나 컴퓨터 게임 등 초등학생의 기호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매체의 개발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의 결혼상태별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견해에서는 기혼교사와 미혼교사 간에 수업방법, 교육내용, 교육매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흡연예방교육의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이 기혼교사 경우 35.3%가 질병예방에 대한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미혼교사는 32.2%가 성장장애에 대한 내용이라 응답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33$), 교육 매체에 대한 의견에서도 기혼교사의 59.6%가 비디오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고 미혼교사도 45.7%가 비디오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컴퓨터 게임과 만화에 각각 26.6% 응답하여 결혼상태에 따른 흡연예방교육 매체에 대한 의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23$). 또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의견에서도 기혼교사와 미혼교사 모두 흡연예방교육의 담당교사로 양호교사를 가장 적임자로 추천하고 있으나 미혼교사는 기혼교사에 비하여 학부모(12.0%)와 기타(10.9%)의 비율이 높아 차이가 있었다($P=0.041$).

이는 기혼교사보다는 미혼교사의 연령층이 대체로 젊은 편이고 따라서 고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며, 이를 토대로 초등학생이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가지고 약물남용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 결 론

1. 결론

초등학교 교사들의 흡연예방교육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흡연예방 보건교육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1999년 11월 15일부터 1999년

12월 18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52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생에게 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1.9%이었으며, 교사의 연령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에 차이가 있어 연령이 낮은 교사가 필요성을 더 높게 응답하였다.
- 2) 흡연예방교육의 시작시기는 37.6%의 교사가 4-5학년, 36.0%가 6학년을 적절하다고 하였다. 흡연예방교육의 시간은 41.1%의 교사가 체육시간을, 28.8%가 특활시간을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효과적인 수업방식으로는 45.1%의 교사가 토론방식을, 39.9%가 실험방식을 추천하고 있었다. 교육내용으로는 질병 유발과 성장발달장애를 각각 33.2%와 28.1%의 교사가 선정하였으며, 가장 효과적인 교육매체로는 교사의 57.2%가 비디오를, 20.0%가 컴퓨터게임을, 19.2%가 만화를 추천하였다. 교육 담당자로 64.1%의 교사가 양호교사를 적격자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결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흡연예방 보건교육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일반 수업 시간이 아닌 체육이나 특활시간에 양호교사가 흡연으로 인한 성장발달장애나 질병유발 내용으로 구성된 비디오를 보여준 후 토론이나 실험식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 1)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초등학교 여학생의 흡연예방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흡연예방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 2)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학생에게 적용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길은미 (1993). 일부남자고등학생의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 및 태도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희 (1995). 약물남용 청소년들의 주관적 경험에 관

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소야자, 박명윤, 오가실, 김경환, 서 일 (1991).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김소야자, 현명선, 성경미, 공성숙 (1994). 양호교사가 실시한 초, 중, 고등학생들의 약물교육 효과연구. 연세교육과학, 103-108.

김효숙 (1993). 보건교육이 국민학생의 약물사용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문화체육부 (1993).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대책연구, 문화체육부.

문화체육부 (1996). 청소년 약물남용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문화체육부.

차현숙 (1997). 약물남용예방교육이 여중생들의 약물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체육청소년부 (1991).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조사, 체육청소년부.

최선화 (1996). 청소년과 약물남용, 서울, 홍익제, 36.38

홍성도, 김승태 (1996). 청소년 약물남용, 대한의사협회지, 39(12), 1496-1500.

Engs, R. C & Fors, S W.988). Drug abuse hysteria: The challenge of keeping perspective. Journal of School Health, 58, 26-28.

- Abstract -

Key concept : Health education, Smoking preventio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irection in Health Education of smoking Preven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Moon, Jung-Soon*Yang, Soo**

*Park, Ho-Rahn*Lee, Eun-Suk***

In order to provide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health education on preventing smok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y understanding the views hel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smoking prevention education, 529 teachers a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were responded by constructed questionnaires during the period of Nov. 15 to Dec. 18 1999.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were as follows:

1. 91.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schools should offer education programs on preventing smoking, and this view was more strongly shared by teachers with religions than non-religious ones.
2. 37.6% of teachers responded that the education should start with 4th-5th graders, while 36.0% opted for 6th grades. With regard to the appropriate class in providing such education, 41.1% selected physical education (PE), followed by extracurricular activity class with 28.8%, 45.1% of the respondents said discussion would be the most effective education method, while

*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andidate for the Ph.D.,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39.9% recommended using experiments. fall in diseases and growth and developmental defect were pointed out as the most interesting topic for students by 33.2% and 28.1% of the surveyed, respectively. As for the most effective media for education, 57.2% recommended video, followed by computer games(19.2%) and cartoons (20.0%). 64.1% of the teachers picked school nurses as the most appropriate person in carrying out the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finding show that it would be most desirable to provide health education on preventing smoking to senior elementary schoolers during the PE or extracurricular activity class by school nurses. The program would be structured to first show video clips on growth and developmental defect or fall in diseases resulting from smoking and to have discussions or experiments on related matters.